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일본/도쿄지사)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[2023년 1월]

1. 일본 수입식품 감시 통계 중간 발표(2022.12)

-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간에 수입된 식품류에 대한 감시지도 중간결과를 발표함
- 동 감시지도결과에 의하면 식품수입 신고건수는 1,245,556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중량은 12,154톤(전년도 11,891) 다소 증가하였음
-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건수는 총106,351건(검역소 모니터링검사 28,568, 명령검사 33,480, 자주검사 43,716)으로 그중 388건이 식품위반으로 적발됨
- 위반형태로 보면 법13조 식품규격(미생물, 잔류농약, 첨가물 사용기준 등) 위반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, 법제6조(아플라톡신, 시안화합물등의 유독물질 부착 등) 위반이 117건, 법제12조(지정외 첨가물 사용) 위반이 12건, 법제18조(기구 및 용기포장등의 규격등) 위반이 24건을 차지하였음
- 검역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건수는 28,568건을 실시한 결과 그 중 87건의 법률 위반이 발생하여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짐
- 모니터링검사에서 위반이 발생한 사례의 경우 동종의 식품에 대해 위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율을 높여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, 실시 결과 추가 위반이 발생한 경우 검사명령을 발동하여 매 수입시마다 검사를 부과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.

※ 자료원 :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1028485.pdf>

2. 시사점

- 검역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통상 전체 수입건수의 5% 수준에서 선통관 후검사 체제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, 위반될 경우 재고품 회수 또는 폐기 처분을 받게 됨
- 위반사례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수입업체 거래선의 재고상황까지

파악하여 폐기토록 함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한 수입업체는 신용저하로 인해 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

II

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1.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위반 사례

-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한국산 쪽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위반사례가 발생함(23.1.26자 공표)

2. 위반 내역

- 신선쪽파
 - 수출자 : NARA NONGSAN
 - 수입자 : 리키타케 토시유키(개인수입업체)
 - 위반내용 : Hexaconazole(헥사코나졸) 0.03ppm검출(일본 기준치 0.01)
 - 한국산 신선쪽파의 경우 전년도에도 잔류농약 에토펜프록스 성분이 위반되고 있어 주의 관리가 필요시 되는 품목임
 - 조치상황 : 전량 소비 완료

※ 자료원 :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발표자료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1034285.xls>

3. 시사점

- 금번 제품은 한인계 시장을 대상으로한 소량 수입물건으로 추정되나 빈번한 위반 발생시 한국농산물 신뢰도 저하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○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3.1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44건이 발생함 (식기류 제외)
- 1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신선 청고추와 쪽파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 검출 2건, 수산물에서 대장균균 양성으로 1건의 위생 위반이 발생하여 계 3건의 위반이 발생함
- 각국에서 수입 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성분부적합의 위반 23건(52.3%), 아플라톡신 위반 5건(11.4%), 대장균균 양성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의 위생위반 14건(31.8%), 기타 2건(4.5%)으로 성분부적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

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○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1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9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,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20.5%를 차지함
- 소바, 신선당근, 소스류 등의 첨가물과 잔류 농약으로 인한 성분부적합 위반 7건, 고춧가루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건, 냉동 양파의 세균수 초과로 인한 위생 위반 등 계 9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태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중국산과 함께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차지했으며 신선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성분부적합 위반 2건, 멥쌀에서 곰팡이 발생 등의 위생 위반 7건 등 계 9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냉동 개구리, 새우 등 성분부적합 위반 3건,, 땅콩 스낵에서 아플라톡신

위반 1건, 레토르트 야채류와 수산물의 위생 위반 3건 등 계 6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○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옥수수와 신선 아몬드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3건, 보리에서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위생 위반 1건, 분말청량음료에서 성분부적합 위반 1건 등 계 5건의 위반이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

<표2>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

국가명	위반건수	위반율	성분부적합	아플라톡신	위생	기타
중국	9	20.5	7	1	1	
태국	9	20.5	2		7	
베트남	6	13.6	3		3	
미국	5	11.4	1	3	1	
한국	3	6.8	2		1	
프랑스	3	6.8	3			
기타	9	20.5	5	1	1	2
합 계	44	100	23	5	14	2
비율(%)			52.3	11.4	31.8	4.5